

도이머이 개혁 이후 베트남의 시민사회: 정치 참여와 민주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동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국문요약〉

기존의 서구중심 이론은 시민사회를 국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국가권력에 도전하는 영역으로 보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베트남의 시민사회를 보면 국가의 통제 아래서 조직의 운영과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아직 미약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도이머이 개혁 이후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시민사회는 오늘날 베트남 시민들의 정치공간을 확대하며 새로운 정치적 기회를 낳고 있다. 본 논문은 베트남의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할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시민사회가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민주적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세계가치설문(WVS) 및 아시안바로미터 자료의 분석 결과, 시민사회 조직에의 참여는 베트남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높이는 반면, 민주적 가치의 함양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타 비민주주의 국가들과 달리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베트남 시민사회가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모두 보여주는 것으로, 시민사회의 성장이 향후 베트남에 어떠한 정치적 변화를 가져다 줄 지 지속적인 관찰을 요한다.

*주제어: 시민사회, 베트남, 정치 참여, 민주적 가치, 세계가치설문

I. 서 론

2007년 봄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는 도심에 거대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던 시 당국과 대기업의 계획은 이를 안 수많은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지식인, 언론인, 그리고 지역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관료와 기업 사이의 결탁과 부정부패, 개발 목적의 땅 투기 등을 성토했던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졌다(Coe 2015; Wells-Dang 2010, 93-94). 또한 토지의 개발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저항하는 시위가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하노이와 호치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십 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Wells-Dang 2010, 100). 이와 더불어 기업에서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2011년 들어 1천여 건을 기록하는 등, 노사 관계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관철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채수홍 2013, 1). ‘도이머이’(Doi Moi)라 불리는 1986년의 경제개혁 이후, 베트남은 공산당에 의한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을 개방하고 경제체제를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바꾸는 개혁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외부적, 자생적 시민단체 조직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시민사회의 성장은 오늘날 베트남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의 시민사회를 지난 수 세기 동안 발전해 온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서구의 시민사회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다루어져 왔다. 국가-사회 관계에 있어 국가 권력에 대항하여 시민들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권위주의적 질서를 전복하여 민주적 정치체의 수립을 이끄는 동력으로 여겨져 온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오늘날 베트남의 시민사회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시민사회 조직의 형성 및 운영을 비롯해 그 성과물이 사용되는 방식에까지, 모든 과정이 당과 국가의 통제 아래 놓여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다면 베트남 시민사회의 성장은 단순한 시민단체 조직의 양적 성장을 가리킬 뿐, 베트남 사회에 정치적 자유를 가져다주는 질적인 성장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도 시민사회의 성장은 베트남에 일정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아무리 국가의 통제 아래 놓인 관변단체라 할지라도 이들의 활동 영역과 참여하는 시민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자의 이익을 따라 집단행동을 하는 정치적 공간이 넓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인적, 정보적 교류를 맺고 지역차원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리를 간접적으로나마 학습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후술하듯이 베트남 사례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체제 안에서 나름의 정치적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오늘날 베트남 시민사회의 특수성을 기존의 서구적 관점과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베트남 시민사회는 얼마나 실질적으로 베트남 시민들의 정치태도와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기

존연구들은, 시민들이 시민사회에 활발히 참여할수록 높은 수준의 정치적 참여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 민주적 가치를 함양하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과연 베트남의 시민사회 역시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러한 영향력은 다른 오래된 민주주의, 신생 민주주의, 그리고 비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얼마나 다른가? 이러한 베트남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은 시민사회를 둘러싼 기존의 두 가지 이론 - 서구 중심적 이론과 대안적(사례 중심적) 이론 - 및 향후 베트남 사회의 변화에 어떠한 함의를 줄 수 있는가? 본 논문은 일련의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해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 시민사회의 현주소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시민사회의 의미와 역할이 정치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다음 장에서는 시민사회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흐름을 정리한다. 서구 중심의 시민사회 이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베트남의 시민사회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베트남이라는 특수한 사례에 중점을 두고 보았을 때 그러한 시각이 지니는 한계는 무엇인지 논하도록 하겠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러한 베트남 시민사회의 양면성이 시민들의 정치행동과 태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기존의 연구들에 입각하여 가설을 설정해보겠다. 분석에 사용될 자료와 변수에 대한 소개에 이어 본격적인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베트남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가 베트남이라는 특수한 사례와 시민사회라는 일반적 개념에 주는 함의에 대해 생각해보겠다.

II. 이론적 논의

1. 서구 중심의 시민사회 이론

서구 민주주의 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시민사회의 이론적 흐름은 크게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을 지적 원류로 하는 자유주의적(Liberalist) 시각과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이론에 뿌리를 둔 신(新)그람시적(Neo-Gramscian) 시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Bernhard et al. 2017). 먼저 자유주의적 시각은 시

민사회를 국가로부터 분리되어 자율성을 지닌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보았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시민사회는 역사적으로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하며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시민적 자유를 수호하는 가운데 성장해왔다. 이렇게 국가와의 대립적 관계를 통해 성장하게 된 시민사회는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체, 혹은 공적 영역에 대비되는 사적 영역을 일컫는 말이 아닌, 공식적 제도와 조직을 통해 형성되어 나름의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독립된 영역을 가리킨다(Ertman 1997; Gutmann 1998; Howard 2003; Moore 1966; Rueschemeyer et al. 1992; Skocpol and Fiorina 1999; Tocqueville 2004). 이렇게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제도로서 존재하는 시민사회는, 내재적으로 민주적 가치와 문화를 함양하게 되며, 따라서 이러한 시민사회의 성장은 곧 그 사회의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동력이 되어 왔다(Diamond 1999; Ekiert and Kubik 1999; O'Donnell and Schmitter 1986; Przeworski 1991).

그렇다면 시민사회의 어떠한 측면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기여하는가? 먼저 아몬드와 베버(Almond and Verba 1963)는 시민적 가치를 상호협력과 신뢰의 정신에 근간을 둔 균형 잡힌 정치 참여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시민사회가 성장하게 되고 이러한 시민사회의 성장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스카치폴, 루시마이어, 에반스(Theoda Skocpol, Dietrich Rueschemeyer, Peter B. Evans) 등은 이러한 시민사회를 보다 제도적 관점에서 이해하려 하였고, 서로의 영역 안에서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시민과 국가가 어떻게 서로 능동적인 관계를 맺는지에 주목하면서, 역시 시민사회를 민주주의의 중요한 한 축으로 보았다(Stepan 1985).

이렇게 정치적, 제도적 관계 안에서 시민사회를 바라보았던 기존의 연구는 퍼트남(Robert Putnam)에 의하여 보다 비공식적, 사적 영역으로 내려온다. 그는 일련의 연구를 통해 공식적 조직에 대한 자발적 참여 뿐 아니라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개인 간의 교류가 곧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바탕이 된다고 보았고, 이러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발달할수록 민주주의 및 경제발전에 유리하다고 보았다(Putnam 1993, 2000). 잉글하트(Inglehart)와 베이커(Baker) 등은 한 발 더 나아가, 가치의 관점에서 시민사회의 성장을 이해하려 하였는데, 경제발전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물질적 생존과 번영을 넘어 삶의 질과 시민적 자유, 그리고 사회적 관용과 신뢰를 추구하는 가치를 함양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Inglehart 1990, 1999). 이들은 이러한 '탈물질주의적 가치(post-materialistic values)'의 함양이 곧 민주주의의 발전을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Inglehart and Baker 2000).

이렇게 국가와 시민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며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양치시킨 자유주의적 시각과 달리, 신그람시적 시각에서는 시민사회를 국가와 투쟁적 관계에 있으나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국가 권력의 통제 아래 그 존재가 구성되어지는 영역으로 인식하였다(Gramsci 1971). 이들에 의하면 국가는 사회의 이념적 헤게모니를 장악함으로써 그들의 동의를 통해 통치의 권위를 얻고자 하며, 반대로 사회는 이러한 국가권력의 침투에 저항하는 투쟁의 장으로서 존재한다. 이렇듯 신그람시적 관점에서도 국가와 사회는 어느 정도 구분되는 존재로 인식된다. 하지만 양자는 끊임없는 이념과 가치에 대한 투쟁을 통해 서로를 구성하는 존재로, 그 구분은 자유주의적 시각에 비해 모호하다 할 수 있다 (Buttigieg 1995; Femia 1981).

이러한 신그람시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국가-사회 관계를 맑시스트적으로 바라보나, 사회의 발전을 통한 국가의 전복과 급진적 사회변혁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고전적 맑시즘과는 차이가 있다. 즉, 이념과 가치의 투쟁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공간과 기회구조가 확대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기존의 체제가 무너지는 사회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를 투쟁적 사회세력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점은 이후, 톨리와 테로우(Charles Tilly, Sidney Tarrow) 등에 의해 주창된 ‘투쟁 정치(contentious politics)’의 지적 흐름과도 연결된다(Tarrow 1998; Tilly 2004; Tilly and Tarrow 2006). 신그람시적 관점은 1980년대 이후 제3의 물결과 공산주의의 붕괴 등의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면서, 시민사회와 권위주의 정권의 공존이 중국에는 사회를 자유화, 나아가 민주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Arato 1993; Linz and Stepan 1996; Stepan 1988). 즉, 신그람시적 관점에서 시민사회는 국가와의 투쟁적 관계를 통해 구성되면서 사회변혁의 동력이 되는 장으로 정의될 수 있겠다.

2. 베트남의 시민사회

베트남 시민사회의 역사적 뿌리는 농경사회와 유교적 질서에 기반을 둔 마을 중심의 네트워크에서 찾을 수 있다(Sinh 2014). 관개농법을 주로 사용하는 벼농사 중심 농경사회의 특성상 노동은 마을 단위로 이루어졌고, 중국의 영향으로 발전한 유교 사상은 마을의 질서를 잡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베트남은 그 지리적 특성으로 중국, 프랑스, 미국 등 숭한 외세의 침입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잦은 전쟁으로 마을 단위의 강한 결속력을 가진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공

동체는 자체적인 행정체제와 제도를 가지는 등 하나의 작은 사회를 이루며 지역 별로 흩어져 발전하였다. 프랑스 식민지배 기간에는 반(反)식민 개혁운동 조직을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형성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시민사회 조직들은 1950년대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베트남 조국전선(The Fatherland Front) 아래의 군중조직(mass organizations)으로 편입되면서 국가조직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Landau 2008).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공산주의 이념과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수호하는 시민사회의 이념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시민사회는 국가의 지배 아래 종속되며 탄압을 받게 되었다.

현대적 의미의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은 1986년 베트남 제6차 공산당 대회에서 채택되어 추진되기 시작한 도이머이 개혁 이후이다. 물론 이러한 시민사회의 성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직을 시민사회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서구적 관점과 같이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성을 지니는 단체만을 시민사회로 본다면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당과 국가의 통제를 받는 베트남의 단체들은 시민사회의 범주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즉 국가로부터 엄격하게 독립된 자율성을 보장받는 조직이란 의미에서의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만을 시민사회로 본다면 베트남에서는 시민사회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 사회가 개방되고 외국 자본이 들어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기업 및 직능조직, 국가의 재원에 의존하지 않는 비정부단체, 그리고 지역단위의 공동체 조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이화용·한재광 2017; 최호림 2008; Nguyen 2014).¹⁾

즉 법과 제도를 넘어 실질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자율성의 측면으로 본다면 베트남 시민단체들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Wells-Dang 2012). 이렇듯 자율성을 이분법이 아닌 정도의 문제로 보았을 때 수많은 종류의 베트남의 공식적, 비공식적 단체들이 시민사회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민사회의 개념을 베트남의 맥락에 맞게 확대하여 볼 경우 베트남의 시민사회는 도이머이 이후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수치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베트남 국내의 비정부기구를 관리하는 ‘베트남과학기술단체연맹(Vietnam Un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ssociations, VUSTA)’에 속한 관련 단체만 2018년 현재 400개가 넘었고,²⁾ 외

1) 베트남 공산당은 2006년 4월 제10차 전국대표회의에서 당 산하의 군중조직 외에도 다른 사회조직과 비정부기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이화용·한재광 2017, 343; 최호림 2008, 270).

2) <http://www.vusta.vn/en/about/> 2018/02/19 검색

국제 비정부기구를 관리하는 ‘베트남우호연맹’(Vietnam Union of Friendship Organizations, VUFO)에는 2010년 800개가 넘는 외국계 비정부기구가 등록되어 있다(Bui 2013, 80).

이러한 공식적 차원의 조직 뿐 아니라 범위를 보다 넓혀 비공식 차원의 모임과 네트워크까지를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본다면 더욱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기존에 있던 마을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풀뿌리 수준에서 발전해가고 있다(Coe 2015; Wells-Dang 2012). 또한 아직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기업과 정부에 대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시위와 노동쟁의가 각 지역의 차원에서 활발히 일어나는 등,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시민사회의 모습 또한 나타나고 있다(Wells-Dang 2010; 채수홍 2013, 2016).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단체들은 여전히 당·국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전직 관료 등 당정의 고위 인사들이 시민사회의 조직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당정의 흡수(cooptation) 전략으로 인해 많은 시민사회 조직들은 풀뿌리적이기보단 엘리트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다(Bui 2013). 시민사회의 역할 역시 보다 진취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정치적 목소리는 배제된 채 주로 보건, 환경, 자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다(이화용·한재광 2017; Hoang 2013; KimDung et al. 2016)

경제개혁을 통해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의 자본가 계층 역시 서구의 부르주아 집단처럼 국가로부터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집단은 아니다. 기업의 설립과 운영이 여전히 많은 부분 국가 관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정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중산층 역시 주로 고위 관료나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에 종사하는 특혜 집단이란 점에서, 이들 역시 국가 권력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Gainsborough 2002).

또한 서구의 시민사회 조직처럼 이들의 경계와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물론 도이머이 이후 어느 정도 시민사회의 성장을 용인하는 법적 완화 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법적 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Sinh 2014; Landau 2008; Lux and Straussman 2004). 이러한 법망의 미비로 인해 실제 많은 조직들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영리 단체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공적 이익이 아닌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 책임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도 하다(Lux and Straussman 2004).

이렇듯 베트남의 시민사회를 서구의 관점, 특히 자유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분명한 한계가 있다. 우선 국가와 시민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여 볼 수 없다. 베트남의 시민사회 조직은 국가로부터 분리된 자율적 집단이 아니다. 물론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용인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조직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이 국가의 통제와 허가 아래 놓여있다. 이뿐 아니라 실제로 시민사회의 주요 운영 과정에 당정의 관료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경계가 매우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당정이 하지 못하는 많은 공공 정책과 활동들을 지역 단위의 민간단체들이 수행해 줌으로써, 베트남의 국가-사회 관계는 대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볼 수 있다(Ladau 2008; Sinh 2014; Wells-Dang 2012).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아래로부터의 변화들이 베트남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즉, 아직은 체제 안의 변화에 머물고 있지만 이러한 크고 작은 시민사회 조직의 성장으로 인해 베트남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지역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Wells-Dang 2010). 물론 이러한 변화가 서구의 투쟁 정치에서 말하는 조직적 차원의 반정부 운동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즉 체제 자체의 변화보다는 체제 안에서 가치와 지배구조(governance)를 변화시키는 움직임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Nguyen 2014). 또한 독립된 제도와 조직을 갖춘 '영역'(domains)으로서의 시민사회보다는 '시민사회적 활동'(civil society actions)을 중심으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시민사회 조직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는 과정으로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있다(Wells-Dang 2012; Wischermann 2011). 즉, 오늘날 베트남의 시민사회는 과거 서구의 시민사회와 같이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독립된 세력으로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체제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름의 정치적 기회를 창출해내고 있고 이것이 베트남의 새로운 국가-사회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 질문 및 가설

위의 논의들을 정리하면, 서구의 역사를 중심으로 정립된 시민사회 이론은 베트남의 특수한 사례를 설명하기에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하는 한편, 동시에 일정

한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의 시민사회가 국가라는 틀 안에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적 관점으로는 높은 수준의 시민사회라 할 수 없다. 과거 18, 19세기 유산계급의 성장이 왕정의 전복을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끌었고, 2차 대전 이후 시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의 신장이 많은 권위주의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며 민주화의 물결을 일으켰던 것 같은 역할을 오늘날 베트남의 시민사회에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이다(Thayer 2009; Wells-Dang 2010). 하지만 기술하였듯이, 체제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들의 정치적 기회를 신장시킴으로써 국가-사회 관계가 재정립되고 있고 시민들의 정치 태도와 행동에도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베트남의 시민사회는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이러한 시민사회의 성장은 개인의 정치적 의식과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러한 시민사회의 영향력은 기존의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들과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 그리고 비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상이, 혹은 유사한가? 기존의 베트남 시민사회에 대한 문헌들은 주로 베트남이란 한 가지 사례에만 집중된 나머지 비교적 관점에서 그들이 갖는 시민사회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또한 오늘날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의 시민사회가 얼마나 시민들의 가치와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 또한 부족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본 논문은 베트남 시민사회가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가치에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다른 국가집단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베트남 시민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아울러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시민사회가 갖는 정치적 영향력, 즉 시민들의 정치적 행동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베트남과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근래 들어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의 시민사회가 그들의 정치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지, 또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반감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비교적 관점에서 볼 것이다.

시민사회가 정치공간에 미치는 영향력은 시민사회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만큼이나 많이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 일반적으로 서구 사회에서의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져 왔고 그 관계란 대부분,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긍정적이며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Howard 2003; Diamond 1999; Putnam 1993, 2000). 토크빌은 미국의 다양한 사적 조직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관찰한 후, 이것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하였다(Tocqueville 2004). 시

민사회 조직을 통하여 자발성과 협력의 정신을 배움으로써 권위주의적 국가에 대항하고 민주적 정신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긍정적 관계는 이후 많은 연구들에 의해 검증되었는데, 대표적으로 퍼트남(1993, 2000)은 미국과 이탈리아의 사례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조직 참여가 그들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였음을 밝혀냈다. 특히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 시민들의 활동을 공식적 영역 뿐 아니라 비공식적 영역으로 확장함으로써, 이러한 자발성과 연대가 민주주의의 성장에 밑거름이 된다고 보았다. 드라이젝(Dryzek 1996) 역시 시민사회 조직의 성장이 시민들을 정치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민주화 과정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끄는 열쇠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화를 이룬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연구한 린즈와 스테판(Linz and Stepan 1996)의 연구 또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Diamond 1999)는 시민사회의 성장을 통해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제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와의 관계는 유럽과 미국 등 서구 민주주의의 뿐 아니라, 동유럽(Arato 1993; Howard 2003), 남미(Oxhorn 1995; Teichman 2009), 그리고 중동(Norton 1994, 1995) 지역에서까지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렇게 시민사회를 민주주의와 등치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성격이 얼마나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신에 합치하는지에 따라,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가 오히려 민주주의의 발전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Akman 2012; Berman 1997; Chambers and Kopstein 2001; Fiorina 1999; Paley 2001; Mudde 2007). 또한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독일의 발전된 시민사회가 오히려 나치 정권의 근간이 되었다는 버만(Berman 1997)의 연구에서 보듯, 시민사회가 속한 정치적 맥락이 비민주적일 경우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해가 될 뿐 아니라 오히려 반민주적 정권의 기반으로 이용될 수 있다. 즉,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반드시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시민사회 조직의 성격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오히려 역의 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은 행동과 의식,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로, 시민사회의 성장이 정치적 참여를 유도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다양한 모양의 공식적, 비공식적 시민사회 조직과 네트워크에 자주 참여할수록,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 정치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이익을 공유하는 동질적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위와 노동쟁의, 투표 등 정치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는 정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러한 정(正)의 관계는 그 시민사회의 성격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해당 시민사회의 성격과 사회의 맥락이 민주적이던 비민주적이던, 어떠한 이익과 목적을 공유하는 집단과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더 많은 정치 참여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베트남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경제개혁 이후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시민조직의 결사와 참여가 활발히 일어남에 따라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노조를 통한 쟁의 지역 차원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해지는 여러 시위들이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의 민주적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이다. 앞서 시민사회의 순기능을 주장했던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시민사회에 활발히 참여할수록 민주적 가치를 함양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시민사회의 성격이 얼마나 민주적이나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즉, 해당 시민사회 조직의 성격이 비민주적이고 극단주의적이거나, 혹은 비민주적 정치체제 속에서 시민사회가 성장함으로써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 민주적 가치를 함양할 수 없다면, 양자 간의 뚜렷한 상관관계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점은 베트남과 같이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더욱 그러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시민사회의 확대가 정치 참여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의 성장이 공산정권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아래서 민주적 가치를 배우고 확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이 민주적 가치를 지닌 집단으로 변하고 있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정리하면, 시민사회가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달리 민주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그 사회의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성장이 정치 참여를 촉진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존의 입장은, 이 두 차원의 문제를 분리하여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행동의 차원에서는 시민사회의 성장이 정치 참여의 확대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의식과 가치의 차원에서는 시민사회의 성격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반드시 민주적 가치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러한 가설들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베트남 시민사회가 갖는 정치적 영향력이 비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IV. 분석과 결과

1. 자료와 방법

본 분석에서는 ‘세계가치설문(World Value Survey, 이하 WVS)’의 국가간 비교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198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7차 조사가 진행 중인 WVS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개인의 의식과 가치를 측정하는 설문조사이다. 베트남의 경우는 제4차(2001년)와 5차(2006년)의 조사에 포함되었는데, 그 중 본 분석의 핵심변수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참여에 대한 설문은 4차에서만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4차에서 조사된 2001년의 베트남 사례를 같은 회차에 포함된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분석의 주제가 베트남의 시민사회가 정치 참여와 민주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다른 민주주의 혹은 비민주주의 집단과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국가들을 크게 오래된 민주주의, 신생 민주주의, 그리고 비민주주의 국가들로 나누었다.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지표로는 Polity 지수를 사용, 6점부터 10점까지를 얻어 민주주의로 분류된 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연속 30년을 넘긴 국가들을 오래된 민주주의로, 30년 이하의 국가들을 신생 민주주의로, 그리고 민주주의로 분류되지 못한 국가들을 비민주주의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하여 본 분석의 표본에는 오래된 민주주의의 6개, 신생 민주주의의 12개, 베트남을 포함한 비민주주의의 10개 등 총 28개 국가가 포함되었다.³⁾

이러한 국가 간 설문자료는 각 나라의 특수한 사회적 맥락을 잘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서로 다른 사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비교준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핵심 문항들이 비교적 사회적 맥락에서 자유로운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행동과 의식을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Howard 2003, 55) 이러한 설문자료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

3) 보다 구체적으로 표본에 포함된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조사년도). (1)오래된 민주주의: 미국(1999), 캐나다(2000), 스웨덴(1999), 인도(2001), 일본(2000); (2)신생 민주주의: 베네수엘라(2000), 스페인(2000), 아르헨티나(1999), 필리핀(2001), 방글라데시(2002), 칠레(2000), 마케도니아(2001), 몰도바(2002), 남아프리카 공화국(2001), 멕시코(2000), 보스니아 앤 헤르체고비나(2001), 세르비아(2001), 몬테네그로(2001); (3)비민주주의: 알바니아(2002), 중국(2001), 키르기스스탄(2003), 모로코(2001), 페루(2001), 싱가포르(2002), 베트남(2001), 짐바브웨(2001), 우간다(2001), 탄자니아(2001).

이다. 더욱이 본 분석에서는 비교적 동일한 시점에서 측정된 같은 회차의 자료들만을 사용함으로써 사례 간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변수로는 먼저, 위의 가설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치적 참여와 민주적 가치라는 두 종류의 종속변수를 사용하여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정치 참여의 정도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치적 활동 참여,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정치적 관심도는 “당신이 얼마나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4점 척도(1점: 전혀 관심 없다~4점: 매우 관심 있다)로 답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정치적 참여 변수는 탄원서 서명, 보이콧 참여, 시위 참여, 노동쟁의 참여, 건물, 공장 등의 점거 등 총 다섯 개의 변수를 종합, 각각의 정치활동을 한 적이 있는 경우 1점을 부여하여 총 0점에서 5점까지의 값을 갖는 변수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고려할 종속변수인 민주적 가치로는, 시민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얼마나 가치있다 여기는지(민주체제 인식), 혹은 권위주의 통치방식을 얼마나 받아들이는지(강한 지도자 인식)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 역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다른 어떤 정치체제보다 낫다”란 4점 척도의 문항(1: 전혀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다)과 “의회와 선거로부터 자유로운 강한 지도자를 갖는 것이 좋은 통치의 방식이다”에 대한, 역시 4점 척도의 문항(1: 매우 나쁜 방식이다~4점: 매우 좋은 방식이다)을 사용하였다.

본 분석의 핵심 독립변수라 할 수 있는 개인별(individual-level) 시민사회 참여 정도는 기존 국가 간 비교연구의 선례(Bernhard and Karakoc 2007; Howard 2003; Pop-Eleches and Tucker 2013)를 따라 응답자가 설문에서 제시하는 15가지 시민사회 단체(voluntary organizations)⁴⁾ 중 총 몇 개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를 조사, 0점부터 15점까지의 값을 가지는 변수로 구성하였다. 물론 시민사회라는 것이 단순한 단체가입 여부로 측정될 수는 없다.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그 조직 내에서 실질적인 활동과 교류를 하고 있는지는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시민단체라 하더라도 베트남과 같이 당의 관리를 받는 단체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도 할 수 있다.⁵⁾ 하지만 하워드가 주장하듯(Howard 2003,

4) WVS 설문에서 조사한 15개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단체, 종교단체, 교육·예술·문화 단체, 노조, 정당, 지역정치단체, 인권단체, 환경·동물보호단체, 직능단체, 청소년단체, 스포츠·레크레이션 단체, 여성단체, 평화단체, 건강관련 단체, 기타단체.

5) 특히 비민주체제의 노조와 정당의 경우 정권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 있고 가입 역시 자율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민주체제와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에서 베트남을 포함한 비민주 국가들의 경우 강건성 테스트(robustness test)의

48-49), WVS 문항에서 다루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국가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기본적 단체들이고 공식적 조직 뿐 아니라 비공식적 모임까지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단체에의 가입 여부가 미흡하나마 시민사회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모든 나라에 공통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고, 단순한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시민사회가 가지는 개념상의 모호함과 복잡함을 줄여준다는 장점도 있다.⁶⁾

이 외에 개인수준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의 인구배경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각 국가집단 및 베트남의 변수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표 1> 주요변수의 국가집단 별 통계

변수	오래된 민주주의			신생 민주주의			비민주주의 (베트남 제외)			베트남		
	표본 수	평균	표준 편차	표본 수	평균	표준 편차	표본 수	평균	표준 편차	표본 수	평균	표준 편차
시민단체 참여(0~15)	26,031	1.61	1.95	35,748	0.87	1.53	14,985	1.09	1.78	1,000	2.33	2.61
정치적 관심(1~4)	23,873	2.37	0.96	34,327	2.30	0.93	27,168	2.36	0.98	980	3.17	0.82
정치적 참여(0~5)	25,458	1.06	1.10	36,719	0.52	0.93	21,246	0.39	0.77	1,000	0.09	0.33
민주체제 인식(1~4)	23,796	3.40	0.68	36,881	3.23	0.72	22,882	3.16	0.84	783	2.90	0.73
강한지도자 인식(1~4)	23,819	1.92	0.99	36,597	2.19	1.02	23,930	2.07	0.99	962	3.85	0.37

일환으로 노조와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단체의 가입 여부만으로 변수를 구성하여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평균 시민단체 가입 수에 있어서만 줄어든 수치를 보일 뿐(비민주주의 집단: 1.09→0.90, 베트남: 2.33→1.94), 기타 회귀분석에서는 본문에 제시된 결과와 영향력의 크기 및 유의미도 모두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본 논문이 시민사회를 민주적 규범의 측면에서 보기보다 국가의 정치적 맥락에 따라 그 성격과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특정 단체를 제외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본문의 분석에서는 모든 국가집단에서 노조와 정당을 포함한 시민단체 변수를 사용하였다.

6)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통계분석에서는 ‘시민사회 수준’이라는 모호한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시민단체 참여 정도’라는 말로 독립변수를 지칭하도록 하겠다.

2. 분석 및 결과

시민사회가 정치 참여와 민주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추론하고자 정치체제의 분류에 따라 일련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 통계방법으로는, 본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들이 모두 순위형(ordered) 변수라는 점에서 순위로지트모형(ordered logistic models)을 사용하였다. 본 분석에 사용된 설문조사가 국가별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국가 내의 응답자들이 가지는 유사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집단 내 유사성(혹은 집단 간 상이성)을 고려하는 방법으로는 고정효과(fixed effects)와 확률효과(random effects) 모형이 있다. 고정효과 모형은 각 집단이 갖는 독특한 영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집단 별로 추정하는 것이다. 반면 확률효과 모형은 집단의 효과가 고정적이 아닌 가변적인 것으로 보고, 집단 수준에서 오차항을 생성하여 추정하는 방식이다. 전자의 경우, 모든 가능한 집단 수준의 요인들을 하나의 효과로 추정해줌으로써, 변수 누락에 따른 편향(misspecification)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집단수준의 요인을 별도로 테스트할 수는 없다는 제약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반대로, 연구자가 관심 있어 하는 집단수준의 요인을 개별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질 만한 모든 집단수준의 변인을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추정의 편향에 빠질 우려가 있다. 본 분석은 집단수준이 아닌 집단 내 개인수준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는 것이고, 각 분석의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집단의 수 역시 적다는 점에서 확률효과보다는 고정효과 모형이 보다 적합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정동준 2016; Bell and Jones 2015; Clark and Linzer 2015). 이러한 점에서 본 분석에서는 각 국가를 더미변수화하여 모형에 포함시키는 고정효과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 2>부터 <표 5>까지 정리하였다. 먼저 시민단체 참여 정도가 정치적 관심과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가집단에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민단체 참여 변수의 영향력은 다른 인구배경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모든 표본에서 매우 강한 유의미도를 보였다. 이는 시민사회 조직에 활발하게 참여할수록 정치현상에 보다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관심이 또한 정치행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시민사회 조직에 참여함으로써 자발성과 연대의식을 함양하고, 자기가 속한 사회적 집단의 이익을 공유하고 그

이익을 함께 추구해 나감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민단체 참여의 영향력은 민주주의 체제의 유무나 성숙과 관계없이 모든 사회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는데, 베트남 역시 이러한 경향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국가집단에서 시민단체 참여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가? 시민사회의 역사가 오래되고 사회집단과 정치집단 사이의 연계가 강한 오래된 민주주의 집단에서 이러한 영향력의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래지 않거나 경험이 없는 국가에서는 그 영향력의 크기가 작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된 각 국가집단의 표본 크기가 다르고, 종속변수가 순위변수인 관계로 비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추정된 계수값만으로는 변수가 가지는 영향력의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독립변수 1단위 증가가 종속변수 1단위의 증가를 가져올 확률(odds)을 의미하는 오즈비(odds ratio)를 결과에 추가하였다. 괄호 안의 오즈비로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예상대로 정치적 관심과 참여 정도 모두에서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래된 민주주의의 경우, 시민단체 참여 정도가 1단위 증가할수록, 즉 하나 더 많은 시민사회 조직에 회원으로 참여할 때마다 약 20% 정도, 정치적 관심과 참여 정도가 1단위 증가할 확률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 집단으로 갈수록 이러한 오즈비의 크기는 조금씩 감소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베트남의 경우 정치적 관심에 있어서는 오래된 민주주의 집단을 능가할 정도의 오즈비를 보였다는 점이다. 즉, 베트남에서 하나의 시민단체에 더 참여할수록 더 많은 정치적 관심을 가질 확률이 24%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관심 변수의 평균값이 다른 국가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표 1>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아래로부터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베트남 시민사회 조직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정치적 관심 제고로도 이어지고 있음이 나타난 것이다. 정치적 참여의 경우에는 다른 비민주주의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정치적 참여에 있어서는 비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시민사회 참여와의 연관성에 있어서는 비슷한 정도의 관계를 보인 것이다.

〈표 2〉 시민사회 정도가 정치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

변 수	오래된 민주주의		신생 민주주의		비민주주의 (베트남 제외)		베트남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성별 (0: 여성, 1: 남성)	0.66***	(1.93)	0.57***	(1.78)	0.59***	(1.80)	0.74***	(2.10)
나이	0.02***	(1.02)	0.01***	(1.01)	0.01***	(1.01)	0.02***	(1.02)
교육 (0: 무학~8: 대졸)	0.19***	(1.21)	0.18***	(1.19)	0.12***	(1.13)	0.16***	(1.17)
소득(1: 최저 십분위~10: 최고 십분위)	0.05***	(1.05)	0.03***	(1.03)	0.02***	(1.02)	0.06	(1.06)
시민단체 참여	0.17***	(1.19)	0.15***	(1.16)	0.09***	(1.10)	0.21***	(1.24)
응답자수	18,682		24,050		12,294		953	
Log-Likelihood	-22455.82		-29112.34		-15244.48		-1000.98	

비고: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각 국가년도의 설문조사가 갖는 고정효과 및 종속변수 값에 상응하는 잠재변수의 분기점(cut points) 추정치는 보고하지 않음.

〈표 3〉 시민사회 정도가 정치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변 수	오래된 민주주의		신생 민주주의		비민주주의 (베트남 제외)		베트남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성별(0: 여성, 1: 남성)	0.28***	(1.32)	0.32***	(1.38)	0.33***	(1.39)	0.13	(1.14)
나이	0.00***	(1.00)	0.00***	(1.00)	0.01***	(1.01)	0.02***	(1.02)
교육(0: 무학~8: 대졸)	0.16***	(1.17)	0.19***	(1.21)	0.12***	(1.13)	0.02	(1.02)
소득(1: 최저 십분위~10: 최고 십분위)	0.03***	(1.03)	0.06***	(1.06)	0.06***	(1.06)	0.09	(1.09)
시민단체 참여	0.19***	(1.21)	0.18***	(1.19)	0.11***	(1.11)	0.12***	(1.12)
응답자수	20,422		27,813		10,306		965	
Log-Likelihood	-25915.03		-25244.95		-8095.31		-276.58	

비고: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각 국가년도의 설문조사가 갖는 고정효과 및 종속변수 값에 상응하는 잠재변수의 분기점(cut points) 추정치는 보고하지 않음.

이와 같이 시민사회 조직에의 참여는 민주주의 단계와 관계없이 개인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에서도 논의하였듯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 하여 반드시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참여하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무엇보다도 그 사회의 전반적인 정치적 가치와 맥락에 따라 시민들 간의 활발한 조직과 네트워크가 오히려 민주적 가치의 함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타인에 대한 관용이 낮은 사회에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될 경우, 민주적 가치와는 상관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표 4>와 <표 5>은 시민사회의 참여 정도가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강한 지도자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단체 참여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주주의의 기간과 관계없이 오래된 민주주의와 신생 민주주의 국가 모두에서, 시민단체 참여의 증가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확률을 3%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이러한 시민단체 참여의 긍정적 영향력은 베트남을 포함한 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양 집단 모두에서 시민단체 참여가 가지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시민사회에 활발히 참여한다고 하여, 민주주의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강한 지도자에 대한 인식은 민주주의 단계에 따라 더욱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5>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오래된 민주주의 집단에서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강한 지도자가 통치하는 정치체제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다 많은 시민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수록 의회와 선거를 초월하는 강력한 지도자의 통치방식을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否)의 상관관계는 신생 민주주의로 넘어오면서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참여 정도와 강한 지도자에 대한 인식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본 분석의 신생 민주주의 집단에 포함된 국가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일부 남부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조사시점 기준으로 아직 민주주의를 지속한 지 10년 안팎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중 많은 나라에서는 아직 민주적 선거와 정당 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고, 체제전환에 따른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면 할수록 민주적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증가하고, 오히려 그러한 정치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분석의 결과는 이러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민주주의 국가로 가서는 더욱 반대로 나타나게 된다. 비민주주의 집단에서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오히려 강한 지도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비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좋은 신호로만 읽혀져서는 안 됨을 보여준다. 자신이 속한 동질적 사회집단과의 교류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곧 민주적 체제로의 선호로 이어지게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회 전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없고 시민들이 이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시민 수준의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해 그들이 마주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 줄 강력한 지도자의 존재를 바라게 됨으로써 오히려 반민주적 체제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사회와 민주적 가치의 관계가 그 사회의 정치적 맥락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한 사회의 정치적 분위기가 얼마나 민주적인가에 따라 시민사회의 참여가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높여주기도 하고, 반대로 긍정적 인식을 높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베트남은 어떠한가? 베트남은 다른 항목과 달리 강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비민주주의 집단보다 신생 민주주의 집단과 유사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같은 비민주주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시민사회의 참여와 강한 지도자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생 민주주의 집단과 같이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 것이다. 이는 베트남 시민사회의 발전이 가지는 한계이자 또한 희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오래된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것 같이 이들의 활발한 시민사회 조직과 활동이 곧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결과는 위의 민주체제 인식과 더불어, 베트남 시민들이 아직까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가치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시민사회의 참여가 민주주의나 권위주의 등 특정 정치체제에 대한 호불호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시민사회의 참여가 강한 지도자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오늘날 베트남 시민사회의 성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 또한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오히려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풀뿌리 수준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고 이것이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경험을 되풀이하면서, 현재의 공산 정권에 대한 회의와 민주적 통치방식에 대한 갈망이 자라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민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사회가 정치체제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러

한 점은 향후 자료가 보완되는 대로 계속해서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 시민단체 참여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변 수	오래된 민주주의		신생 민주주의		비민주주의		베트남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성별(0: 여성, 1: 남성)	0.21***	(1.23)	0.06**	(1.06)	0.10***	(1.11)	-0.13	(0.88)
나이	0.02***	(1.02)	0.00***	(1.00)	0.00	(1.00)	0.00	(1.00)
교육(0: 무학~8: 대졸)	0.15***	(1.16)	0.09***	(1.09)	0.07***	(1.07)	0.01	(1.01)
소득(1: 최저 십분위~10: 최고 십분위)	0.04***	(1.04)	0.05***	(1.05)	0.06***	(1.07)	0.07	(1.07)
시민단체 참여	0.03***	(1.03)	0.03***	(1.03)	-0.01	(0.99)	0.01	(1.01)
응답자수	19,898		27,334		10,174		773	
Log-Likelihood	-17703.54		-26812.55		-9816.98		-839.92	

비고: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각 국가년도의 설문조사가 갖는 고정효과 및 종속변수 값에 상응하는 잠재변수의 분기점(cut points) 추정치는 보고하지 않음.

〈표 5〉 시민단체 참여가 강한 지도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변 수	오래된 민주주의		신생 민주주의		비민주주의		베트남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성별(0: 여성, 1: 남성)	0.03	(1.03)	-0.01	(0.99)	-0.02	(0.98)	0.28	(1.33)
나이	0.00***	(1.00)	0.00	(1.00)	0.00	(1.00)	0.00	(1.00)
교육(0: 무학~8: 대졸)	-0.14***	(0.87)	-0.10***	(0.90)	-0.08***	(0.93)	-0.02	(0.98)
소득(1: 최저 십분위~10: 최고 십분위)	-0.03***	(0.97)	-0.03***	(0.97)	-0.03***	(0.97)	0.12*	(1.13)
시민단체 참여	-0.03***	(0.97)	0.00	(1.00)	0.05***	(1.05)	-0.01	(0.99)
응답자수	19,989		27,165		11,903		942	
Log-Likelihood	-23593.53		-32907.05		-13982.94		-406.91	

비고: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각 국가년도의 설문조사가 갖는 고정효과 및 종속변수 값에 상응하는 잠재변수의 분기점(cut points) 추정치는 보고하지 않음.

이상의 결과는 모두 WVS의 제4차 조사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횡단면 자료의 사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포착하지 못하며,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인 2000년대 초반 이후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더욱이 베트남에서 제4차 조사가 이루어졌던 2001년은 이제 막 도이머이 개혁의 경제적, 정치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시기란 점에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비록 자료의 부족으로 같은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할 수는 없었으나, 보충할 만한 자료로 '아시안 바로미터'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가분석을 진행해 보았다. 아시안 바로미터는 대만의 '동아시아 민주주의 센터(The Center for East Asia Democratic Studies)에서 200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권 국가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묻는 설문으로, 현재 제4차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조사대상에 10개 남짓의 아시아 국가들만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다른 국가집단과의 비교연구는 수행할 수 없었고, 베트남 사례만을 가지고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장 최근의 자료(2015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그 다음으로 최근 자료인 제3차 조사의 자료(2010년)를 사용하였다.⁷⁾

분석 결과, 위에서 얻은 통계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6>에 정리된 바와 같이, 보다 많은 시민단체에 참여할수록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분쟁적인 정치행동에도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관심과 참여, 두 모델 모두에서 시민단체 참여의 영향력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오즈비를 통해 보인 그 정도 또한 상당히 컸다. 물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시민단체 참여의 영향력이 2001년에 비해 더 커진 것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부록에 상술하였듯이 아시안 바로미터 자료를 사용한 시민단체 참여 변수는 0부터 3까지의 값만을 가지고 있어, 앞선 WVS의 동일한 변수에 비해 한 단위 증가가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이한 자료와 변수를 사용하였기에 수치의 단순 비교보다는 결과의 전반적인 패턴에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민주주의 체제나 강한 지도자의 인식에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모델 모두에서 시민단체 참여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데 실패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위의 베트남 분석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베트남 사회에서 단순히 시민사회 조직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만

7) WVS와 아시안 바로미터의 문항과 보기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 가급적 비슷한 취지의 항목을 사용하여 동일한 변수를 구성코자 하였다. 아시안 바로미터 설문을 사용하여 만든 변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으로 정치체제의 인식이 바뀌지는 않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즉, 10년 정도가 지난 2010년에도 시민사회와 정치행동·의식 간에는 유사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록 현재 두 설문조사 모두에서 가장 최근의 자료들이 사용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동안 베트남에 특별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점을 생각할 때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향후 변화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변화가 서구 민주주의와 같이 민주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일어났을지 아니면 비민주주의 국가들처럼 권위주의 정권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는 쪽으로 진행되었을지는, 자료가 확보되는대로 추가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표 6〉 시민단체 참여가 정치 참여와 민주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아시안 바로미터)

변 수	정치적 관심		정치적 참여		민주주의 인식		강한 지도자 인식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성별(0: 여성, 1: 남성)	0.81***	(2.24)	0.52***	(1.69)	0.21	(1.24)	0.34**	(1.40)
나이	0.00	(1.00)	0.00	(1.00)	0.00	(1.00)	0.00	(1.00)
교육(1: 무학~10: 대학원 이상)	0.08**	(1.09)	-0.08*	(0.93)	-0.01	(0.99)	-0.02	(0.98)
소득(1: 최저 이십분위~5: 최고 이십분위)	0.03	(1.03)	0.06	(1.06)	0.04	(1.04)	0.15***	(1.16)
시민단체 참여(0~3)	0.48***	(1.62)	0.41***	(1.50)	0.06	(1.06)	0.09	(1.09)
응답자수	838		755		701		754	
Log-Likelihood	-961.94		-775.11		-602.11		-855.17	

비고: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각 종속변수 값에 상응하는 잠재변수의 분기점(cut points) 추정치는 보고하지 않음.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경제개혁 이후 베트남의 시민사회의 성장이 시민들의 정치행동과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

보았다. 베트남과 같이 정치체제에서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나라에서 나타나는 시민사회는, 기존 서구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는 제대로 된 시민사회라 여겨지기 어려웠다.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성장을 통해 국가의 권위에 대항하며 자유화와 민주화를 이끌어 냈던 서구의 관점으로 보자면 여전히 공산당과 국가의 통제 아래 머물고 있는 베트남의 시민사회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이들의 활동이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고 체제의 변혁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권위주의적 통치의 모순과 결함을 보완해 줌으로써 체제의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수준에서 일어나는 활발한 교류와 시민조직의 성장은 분명 오늘날 베트남 사회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같은 이해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조직을 형성하고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지역 차원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서구적 관점에서는 제대로 잡아낼 수 없는, 베트남 시민사회만이 갖는 독특한 모습과 그로 인한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민사회의 발전은 실질적으로 베트남 시민들의 정치태도와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본 논문에서는 정치 참여와 민주적 가치라는 두 차원에서 베트남 시민사회가 가지는 영향력을 다른 정치체제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WVS 설문분석 결과, 먼저 베트남 시민들이 시민단체에 참여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발한 시민사회 활동은 그들의 정치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정치적 관심을 제고하는 정도는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들보다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 참여의 제고가 곧 민주적 가치의 함양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시민사회 조직 및 그들이 주창하는 이슈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회의 정치적 맥락에 따라 시민적 교류와 집단행동이 반드시 민주적 가치와 연결되지는 않는 것이다. 오히려 비민주적 제도와 분위기 속에서 자신과 동질적 성향의 사람과만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타인에 대한 관용과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 가치와는 멀어지게 될 수 있다.

실제로 베트남을 비롯한 비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시민사회는 민주적 가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인식과 시민사회 사이의 상관관계는 다른 비민주주의 국가들과 같이 베트남에서도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았다. 반면 오래된 민주주의와 신생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사회에 활발히 참여할수록 민주주의 체제를 보다 가치롭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권위주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베트남과 비민주주의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시민사회에 참여할수록 오히려 강한 지도자에 호의를 갖게 되는

비민주주의 국가들과 달리, 베트남에서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양자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베트남의 이러한 관계는 보다 최근에 이루어진 아시안 바로미터의 설문자료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논문의 결과는 베트남 시민사회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되는 기존의 두 가지 이론, 즉 서구 중심적 이론과 사례 중심적 이론이 모두 일정한 적실성을 가짐을 보여준다. 특히 시민사회가 정치적 관심을 제고하는 힘이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보다도 강하게 나타난 점, 그리고 민주적 가치의 측면에서 신생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 국가들 중간에 위치한 점 등은 이러한 베트남 시민사회의 양면적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의 통제 아래 시민사회 조직의 설립과 운영이 좌우되면서도, 그러한 아래로부터의 활동이 시민들의 정치적 행동과 의식에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물론 그러한 시민사회 조직의 성장만으로 현재 베트남 사회가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비단 제도적 문제를 떠나, 개인적 수준에서 시민사회 참여와 민주적 가치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베트남과 같이 일당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적 맥락 속에서 시민사회 조직에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는 민주주의의 대한 지지와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베트남 시민사회를 마냥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비록 현재에는 시민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한 정치체제로의 호불호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그 방향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다른 비민주주의 국가들과 달리 권위적 통치방식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즉, 시민사회의 참여와 이를 통한 정치적 관심의 제고가, 적어도 현재의 권위주의 체제를 공고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오히려 최근의 몇몇 사례 연구들이 보여주듯, 시민사회 조직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이해관계의 조직화와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한 민주적 가치를 배워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당장 체제의 전복을 피하지는 않더라도, 권위주의적 질서를 조금씩 바꿔나가며 정치적 자유를 신장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화가 민주화를 담보하지는 않지만, 자유화 없이는 민주화도 없다는 점에서(O'Donnell and Schmitter 1986; Przeworski 1991) 충분히 의미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본 분석 결과는 이러한 긍정적인 미래상을 일부 제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시민적 동력을 베트남 정권이 어떻게 통제하고, 양자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정의되어 가는가에 따라 향후 베트남 정치체제의 변

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이 베트남 공산당과 국가가 공권력과 정보의 우위를 앞세워 시민사회를 잘 통제해 간다면, 체제 내의 작은 변화들을 통해 권위주의 체제가 갖는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오히려 체제유지와 공고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쌓여 국가에 대한 시민의 저항이 임계치를 넘어서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격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베트남 정부가 그들이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체제에 대한 불만이 축적되고 권력의 정당성이 약화된다면, 반대파의 성장과 권력 내부의 분열을 통해 체제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Linz 1978). 시민사회의 성장이 앞으로 베트남의 정치와 국가-사회 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향후 지속적인 관찰을 요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국문 논문

- 이화용, 한재광. 2017. “국제개발협력과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 공여국의 베트남 시민사회 지원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5(1), 329-368.
- 정동준. 2016. “북한주민의 남한 문화 경험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일과평화』 8(2), 111-148.
- 채수홍. 2013. “베트남 살쟁이 파업의 양상과 원인: 남부 빈즈엉(Binh Duong)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3(3), 1-48.
- 채수홍. 2016. “산업화 역사, 사회경제적 분화, 그리고 노동자의 저항: 베트남 남부 빈즈엉 성의 민족지적 사례.” 『비교문화연구』 22(1), 541-583.
- 최호림. 2008. “베트남의 시민사회와 NGO: 현황과 평가.” 『민주주의와 인권』 8(2), 267-307.

영문 논문

- Akman, Ayhan. 2012. “Beyond the Objectivist Conception of Civil Society: Social Actors, Civility and Self-Limitation.” *Political Studies* 60, 321-340.
- Almond, Gabriel and Sidney Verba.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rato, Andrew. [1981] 1993. *From Neo-Marxism to Democratic Theory*. Armonk, New York: M.E. Sharpe.
- Bell, Andrew and Kelvyn Jones. 2015. “Explaining Fixed Effects: Random Effects modelling of Time-Series Cross-Sectional and Panel Data.”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3(1), 133-153.
- Bernhard, Michael, Dong-Joon Jung, Eitan Tzelgov, Michael Coppedge, and Staffan I. Lindberg. 2017. “Making Embedded Knowledge Transparent: How the V-Dem Dataset Opens New Vistas in Civil Society Research.” *Perspectives on Politics* 15(2), 342-360.
- Bernhard, Michael and Ekrem Karakoc. 2007. “Civil Society and the Legacies of Dictatorship.” *World Politics* 59(4), 539-67.
- Berman, Sheri. 1997. “Civil Society and the Collapse of the Weimar Republic.” *World Politics* 49(3), 401-429.

- Bui, Thiem H. 2013.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nd dynamics of governance in Vietnam's one party rule." *Global Change, Peace & Security* 25(3), 77-93.
- Buttigieg, Joseph A. 1995. "Gramsci on Civil Society." *Boundary* 22(2), 1-32.
- Chambers, Simone and Jeffrey Kopstein. 2001. "Bad Civil Society." *Political Theory* 29(6), 837-65.
- Clark, Tom S. and Drew A. Linzer. 2015. "Should I Use Fixed or Random Effects."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3(1), 399-408.
- Coe, Cari An. 2015. "'Civilized City': How Embedded Civil Society Networks Frame the Debate on Urban Green Space in Hanoi, Vietnam."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5(6), 617-635.
- Diamond, Larry Jay. 1999. *Developing democracy: Toward consolid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Dryzek, John. S. 1996. "Political Inclusion and the Dynamics of Democratiz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0(1), 475 - 88.
- Ekiert, Grzegorz and Jan Kubik. 1999. *Rebellious Civil Societ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Ertman, Thomas. 1997. *Birth of the leviathan: Building states and regimes in medieval and early modern europe*. Cambridge, [E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mia, Joseph V. 1981. *Gramsci's Political Thought: Hegemony, Consciousness, and the Revolutionary Process*. Oxford: Clarendon Press.
- Fiorina, Morris. 1999. "Extreme Voices: A Dark Side of Civic Engagement." In Theda Skocpol and Morris Fiorina, eds. *Civic Engagement in American Democra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395-425.
- Gainsborough, Martin. 2002. "Political Change in Vietnam: In Search of the Middle-Class Challenge to the State." *Asian Survey* 42(5), 694-707.
- Gramsci, Antonio. 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of Antonio Gramsci*. New York and London: International Publishers, Lawrence and Wishart.
- Gutmann, Amy. 1998. *Freedom of associ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oang, Tu-Anh. 2013. "Civil Society Organisations' Roles in Health

- Development in Vietnam: HIV as a Case Study." *Global Public Health* 8(1), 92-103.
- Howard, Marc Morjé. 2003. *The Weakness of Civil Society in Post-Communist Europe*.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1999. "Trust, Well-Being and Democracy." In Mark E. Warren, eds. *Democracy and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and Wayne E. Baker. 2000.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1), 19-51.
- KimDung, Nguyen, Simon R. Bush, and Arthur P. J. Mol. 2016. "NGOs as Bridging Organizations in Managing Nature Protection in Vietnam." *Journal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25(2), 191-218.
- Landau, Ingrid. 2008. "Law and Civil Society in Cambodia and Vietnam: A Gramscian Perspective."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8 (2), 244-258.
- Linz, Juan. 1978. "Crisis, Breakdown, and Reequilibration." In Juan Linz and Alfred Stepan, eds. *The Breakdown of Democratic Regim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3-124.
- Linz, Juan and Alfred Stepan. 1996.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ux, Steven and Jeffrey Straussman. 2004. "Searching for Balance: Vietnamese NGOs Operating in a State-led Civil Society."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24, 173-181.
- Migdal, Joel. 2001. *State in Society: Studying how States and Societies Transform and Constitute One Anoth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gdal, Joel, Atul Kohli, and Vivienne Shue. 1994. *State Power and Social Forces. Domination and Transformation in the Third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ore, Barrington. 1966.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Boston: Beacon Press.

- Mudde, Cas. 2007. "Civil Society." In Stephen White, Judy Batt and Paul Lewis, eds. *Developments in Central and East European Politics*. Durham: Duke University, 213-228.
- Nguyen, Tu Phuong. 2014. "Rethinking State-Society Relations in Vietnam: The Case of Business Associations in Ho Chi Minh City." *Asian Studies Review* 38(1), 87-106.
- Norton, Augustus Richard. 1994. *Civil Society in the Middle East, Volume 1*. Leiden: E. J. Brill.
- Norton, Augustus Richard. 1995. *Civil Society in the Middle East, Volume 2*. Leiden: E. J. Brill.
- O'Donnell, Guillermo and Philippe Schmitter. 1986.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In Guillermo O'Donnell, Phillippe Schmitter, and Laurence Whitehead, eds.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Vol. 4*, Baltimore: Johns Hopkins, 1-72.
- Oxhorn, Philip. D. 1995. *Organizing Civil Society: The Popular Sectors and the Struggle for Democracy in Chile*.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Paley, Julia. 2001. *Marketing Democra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op-Eleches, Grigore and Joshua Tucker. 2013. "Associated with the Past? Communist Legacies and Civic Participation in Post-Communist Countries."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and Cultures* 27(1), 45-68.
- Przeworski, Adam. 1991. *Democracy and the Marke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Rueschemeyer, Dietrich, Stephens, John D., Ph. D, Evelyne Huber, John D. Stephens, and Evelyne Huber Stephens. 1992. *Capitalist Development and Democra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inh, Bach Tan. 2014. "Bringing past models into the present: identifying civil society in contemporary Vietnam." In Gabi Waibel, Judith Ehlert, and

- Hart N. Feuer, eds. *Southeast Asia and the Civil Society Gaze*. New York, NY: Routledge, 39-58.
- Skocpol, Theda, Morris P. Fiorina, and Inc NetLibrary. 1999. *Civic Engagement in American Democracy*. Washington, D.C; New York;: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Stepan, Alfred. 1985. "State Power and the Strength of Civil Society in the Southern Cone of Latin America." In Peter B. Evans, Dietrich Rueschemeyer and Theda Skocpol, 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17-346.
- Stepan, Alfred. 1988. *Rethinking Military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arrow, Sidney G. 1998.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and Contentious Politics*. 2nd ed. New York;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eichman, Judith A. 2009. "Competing Visions of Democracy and Development in the Era of Neoliberalism in Mexico and Chil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30(1), 67-87.
- Thayer, Carlyle A. 2009. "Vietnam and the Challenge of Political Civil Societ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31(1), 1-27.
- Tilly, Charles. 1995. *Popular Contention in Great Britain, 1758-1834*.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Tilly, Charles. 2004. *Contention and Democracy in Europe, 1650-2000*. Cambridge, U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illy, Charles and Sidney Tarrow. 2006. *Contentious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Tocqueville, Alexis de. [1835, 1840] 2004.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Library of America.
- Vasavakul, Thaveeporn. 2003. "From Fence-Breaking to Networking: Interests, Popular Organizations, and Policy Influences in Post-Socialist Vietnam." in Ben J. Tria Kerkvliet, Russell Hiang-Khng Heng, and David W. H. Koh eds., *Getting Organized in Vietnam: Moving in and Around the Socialist State*. Singapore: ISEAS, pp. 25-61.
- Wells-Dang, Andrew. 2010. "Political Space in Vietnam: a View from the

‘Riceroots’” *The Pacific Review* 23(1), 93-112.

Wells-Dang, Andrew. 2012. *Civil Society Networks in China and Vietnam: Informal Pathbreakers in health and the Environment*.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Wischermann, Jorg. 2010, “Civil Society Action and Governance in Vietnam: Selected Findings from an Empirical Survey.”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29(2), 3-40.

Wischermann, Jorg. 2011, “Governance and Civil Society Action in Vietnam: Changing the Rules From Within: Potentials and Limits.” *Asian Politics and Policy* 3(3), 383-411.

Abstract

**Civil Society in Vietnam after Doi Moi:
A Comparative Study of the Effects of Civil Society o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Values**

Dong-Joon Jung ■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xtant Western-oriented literature of civil society has largely regarded it as a realm that exists independently from the state and resists the domination of its power over people. From this perspective, civil society in Vietnam should be seen as weak as the process of its foundation and operation is solely under control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However, case-oriented studies focusing on the indigenous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in Vietnam claim that it has expanded their political space creating new opportunity structures. To evaluate the present state of Vietnamese civil society more in perspective, I examine its role in relation to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values. From comparisons to other groups of established, newborn, and non democratic countries using the World Value Survey and Asian Barometer data, it is found that Vietnamese civil society, like other democratic countries, has promoted political interest and participation, but fails to have done so with respect to democratic values. It at least did not, however, lead to the support of authoritarian leadership as other non-democratic states did. These results show the ambivalent role of the Vietnamese civil society in their political space partly confirming both Western- and case-oriented theories.

Key Words: Civil society, Vietnam, Political participation, Democratic values, WVS

□ 논문접수일: 2018년 1월 12일, 심사완료일: 2018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 2018년 3월 12일

[부록] 아시안 바로미터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한 변수의 구성

종속변수: 회원으로 가입된 시민단체의 수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시민단체의 종류를 주어진 보기에서 세 개까지 고르라고 한 항목들을 사용, 선택한 경우 1, 없다고 한 경우 0으로 코딩한 뒤 세 항목들의 값을 합하여 0부터 3까지의 값을 갖는 변수를 만들었다. 물론 이 변수는 세 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본다는 점에서 WVS을 사용한 변수와는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WVS의 시민단체 가입 변수를 보아도 대부분의 응답자(제4차 조사의 경우 약 92.4%)가 3개 이하의 단체에만 가입되어 있고, 또한 3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활발하게 시민사회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으로 묶어서 볼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본 변수의 사용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독립변수

1. 정치적 관심: 본인이 얼마나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4점 척도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2. 정치적 참여: 아시안 바로미터는 여러 종류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문항들을 질문하고 있다. 그 중에서 본 분석이 사용한 WVS의 항목들이 모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치적 행동을 한 적이 있었는지를 물었다는 점에서, 비슷한 항목 네 가지를 사용하였다(“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 적이 있는가?”, “탄원서를 작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 적이 있는가?”, “데모 또는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자 무력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를 1, 없는 경우를 0으로 코딩한 뒤, 네 항목의 값을 더하여 참여정도(0에서 4)를 변수로 만들었다.

3. 민주체제 인식: WVS과 동일한 4점 척도의 질문(“민주주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여전히 가장 좋은 정부체제이다”)을 사용하였다.

4. 강한 지도자 인식: WVS과 동일한 방식으로 질문한 문항이 없는 관계로, 다음의 질문으로 대체하여 4점 척도의 변수를 구성하였다. “우리는 의회와 선거를 없애고, 강한 지도자가 사안을 결정하게 해야 한다.”

